

# 순창 슬로푸드 마을 본격 추진

### 군, 강경 등 4개 마을 중심 생활체험관·복합음식체험관 등 운영키로

순창군이 슬로푸드 마을 조성사업을 본격화해 지역공동체 복원과 농가소득 창출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군은 적성면 강경 등 4개 마을을 중심으로 슬로푸드 마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농업의 가치 생활 실천으로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돕고 지역민 소득 창출에도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슬로푸드마을 조성관련 하드웨어 사업과 마을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올해까지 5억 1000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적성슬로푸드공동체위원회도 이미 구성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군은 우선 야생채취와 다량인 논 등 옛 농경문화 기반이 잘 간직된 강경 마을에 슬로푸드 생활체험관을 신축한다. 슬로푸드 생활체험관은 111.5㎡ 규모로 도시민들이 머물면서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슬로푸드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농장과 복합음식체험관도 마련한다. 또 운영을 위해 체험프로그램개발, 연과 산야초를 활용한 지역음식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미 지난해 연 판피터, 삼락농정



순창 슬로푸드 강경마을 야생채취밭

직거래 장터, 순창진류축제 등을 통해 연과 약초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슬로푸드 국제대회에 절여 말린 은어 요리로 참가해 큰 관심을 끌었다.

요리개발 이외에도 공동체다. 동네목수집 숲 생태교사, 조리실무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해 슬로푸드 마을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

군은 하드웨어 사업이 마무리되면 사업의 본격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최근 군이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장군목 주변 용결산 치유의 숲과 생태탐방로 등 산림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어 관광객 유치의 시너지 효과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적성슬로푸드복원사업은 옛 농경문화가 잘 간직된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도시민이 지역에 머물면서 건강에 좋은 슬로푸드를 체험하고 지역민과 함께 어울리는 의미 있는 관광자원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순창=구인규 기자



## 전국춘향선발대회 예선 9일 열려

### 신청자 400명 중 본선 진출자 32명 선정

대한민국 대표 전통마임을 선보이는 제86회 춘향제 전국춘향선발대회 예선이 9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춘향선발대회는 지난 5일까지 400명의 참가 신청을 마감하고 오는 9일 예선을 통해 국내 29명의 본선 진출자와 캐나다, 미주, 중국 등 해외 동포 3명을 포함 총 32명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 참가자들은 5월2일 춘향묘 참배를 시작으로 10박 11일 간의 합숙훈련에 돌입한다. 합숙기간 동안 춘향정신 함양과 예절교육, 복지시설 자원봉사, 남원비로알기, 춘향제 홍보와 더불어 본선에서 선보일 각 장르의 무용과 특기를 준비하게 된다.

춘향선발은 5월 12일 오후시 광한루원에서 32명의 춘향 후보들이 진·선·미·정·숙·현, 우정상, 해외동포상을 놓고 경연한다.

선발된 춘향자들은 춘향제 기간 동안 축제장 일원에서 관광객들과 춘향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남원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1년간 남원시와 춘향 홍보에 바쁜 일정을 보낼 예정이다. 한편 춘향선발대회는 1967년 시작으로 50년째 이어지며 춘향제와 남원 홍보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춘향선발대회를 통해 연예계에 데뷔한 배우 박지영, 오정해, 윤순하, 이다해, 장신영, 유연지, 김예슬, 김준형, KBS N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윤태진과 걸그룹 다이아의 리더보컬 조승희 등 브라운관과 스크린 등은 방송 무대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82회 이후 선출된 춘향이 24명으로 구성된 춘향방송단 예음회를 조직해 봉사활동 등으로 춘향의 사랑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옷나무 농가소득화 길 열린다

### '임실·순창 옷 발효식품 가치창조사업단' 도 전략사업 선정... 2021년까지 60억 확보

임실군과 순창군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임실·순창 옷 발효식품 가치창조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예비사업단으로 지난 1일 선정됐다.

이번 사업단 선정은 지난달 31일 열린 전라북도 '2017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심사 평가에서 우수한 옷나무의 가능성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창조 사업을 발굴해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 선정됐다.

군은 지난 2002년부터 산지지원회사 사업으로 추진한 옷나무 재배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신덕면 금정리 일원에 74ha 면적, 약 20여만 주의 옷나무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귀농·귀촌인과 연계해 체계적인 재배·관리로 희망농업을 이룰 새로운 원동력으로 육성했다.

앞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 계획서 수정 및 보완과 농림부 사업성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오는 2017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비 30억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60억원을 확보해 옷나무를 활용한 새로운 식품 산업 및 다양한 산업용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관 기관인 군은, 임실 치즈과학연구소 내 순창군과 전북대학교 (농)임실찰땀세상(주), 우리촌, (농)순창장류(주)가 참여하는 사업단을 구성해 옷나무의 알레르기 성분인 '우루사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기술을 활용, 옷 발효식품의 안전성, 기능성, 표준화, 규격화 등을 통해 타 지역과 차별된 전략을 수립하고 저염 및 기능성 발효식품 개발에 나선다.

또한, 옷땀 음식점을 대상으로 옷나무 추출액을 공급하는 옷 소재화 공장을 건립해 옷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이번 사업 선정평가에



찰땀나무

서 지원된 내용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수정·보완해 옷나무가 군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고창군, 재해 대응·생활안전수칙 포스터 배포

고창군이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풍수해 등 재난재해발생 증가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5일 재난·재해 대응요령 및 생활안전수칙 매뉴얼을 포스터로 제작해 읍·면 마을회관과 경로당·어린이집 등 복지시설과 학교 병원, 금융기관 1000개소에 배부·게첨했다.

홍보물은 가로 58cm, 세로 84cm 크기에 2종의 포스터로 제작되어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하고 잘 볼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글자도 크게 제작했으며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과 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수칙 등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홍보물에는 태풍, 폭우, 지진, 해일, 폭염, 화재 등 각종 자연재난 대처 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응급처치요령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군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부 시 즉시 연상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군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가입 및 안전신고요령과 유관기관 대표 신고전화번호가 수록되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우정 군수는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대처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군민들이 재난재해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생활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고창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군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지역특리

### 주민시네마스쿨 교육생 모집 순창군, 13일까지 선착순

순창군이 영화제작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상·영화 콘텐츠 제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주민시네마스쿨을 운영한다.

주민시네마스쿨은 영상·영화 콘텐츠 제작 교육을 통해 지역의 이야기를 주민 스스로 콘텐츠화하고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은 영상물 제작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며 디지털카메라 촬영 교육 및 실습 영상촬영교육, 편집교육, UCC 만들기 등 기본적인 교육부터 연출과 영상 언어 익히기, 구성과 시나리오 짜기, 촬영실습, 편집기술까지 단편영화 촬영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내용까지 다양화했다.

교육은 4월부터 12월까지 총 30차시 교육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진행한다. 군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13일까지 교육생을 선착순 접수받는다.

접수를 원하는 사람은 순창군 문화관광과에 접수하거나 전화 063-650-1635로 전화신청하면 된다. /순창=구인규 기자

### 순창경찰 '테마 도보순찰길' 운영

순창경찰서가 도보순찰의 패러다임을 바꾼 '테마 도보순찰길'을 운영 중에 있어 지역사회의 눈길을 끌고 있다.

'테마 도보순찰길'은 기존의 범외방 도보순찰의 개념을 세분화하고 도보길을 특정화하여 맞춤형 도보순찰을 시행하는 특수시책이다.

시장을 중심으로 한 '맛새길', 학교를 주변으로 한 '새싹길', 유흥업소를 주변으로 한 '홍청길',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금자리길' 4개 테마 순찰길을 지정 운영 중에 있다.

순창경찰은 '테마 도보순찰길' 운영을 통해 범외방은 기본이고, 협력차단 활성화 및 효율성 고취, 셉테드(PTED) 활성화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테마 도보순찰길 내실화를 위한 T/F팀을 구성 순창군청, 순창교육지원청, 자율방범대, 내고을안전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관·경을 모두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월 T/F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로 전폭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순창=구인규 기자

### 고창보건소, 청소년 구강관리 나서

고창군 보건소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해 적극 나선다.

보건소는 7일부터 10월까지 관내 4개 초·중·고교를 방문해 학생 2000여명에게 구강건강관리교육, 구강검진,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를 무료로 실시한다.

불소는 치아 표면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과 세균의 침범으로 약해진 부위를 단단하게 해주며 세균의 활동을 사전에 방지하여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치아에 불소를 직접 바르면 치아 사이나 칫솔질이 잘 되지 않는 부위에 불소성분이 장시간 붙어 있어 충치균을 발생시키는 산의 작용을 억제시키고 원인을 제거하며, 치아 겉 표면을 단단하게 해줌으로써 충치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

보건소는 또 개인별 칫솔을 배부해 점심식사 후 칫솔질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치아 건강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 대산파출소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홍보

남원경찰서 대산파출소는 지난 3월 20일부터 농번기 경운기 등 농기계 안전사고 및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 홍보는 경찰서에서 제작한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전단지 배포하고 최근 남원지역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망사고 사례를 설명하면서 농기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특히, 소재주 대산파출소장은 도로가 좁은 농로나 임도 주행시 저속운행과 안전조작을 당부하고 농기계 조작시 음주운전 엄금·야간운행 자제·밝은 옷 입기를 강조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